



계성산우회보

제 42 호

- 발 행 인 : 김시우
- 편집국장 : 정인재
- 등반대장 : 류청웅
- 편집위원 : 김진걸
- 총 무 : 신대수

2007년 6월 22일(금)

교훈: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발행처:계성산우회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 전화:(053)255-3900 FAX(053)256-4942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

7월 정기산행

지리산 반야봉(1,732m)에서

오랜만에 지리산 등반. 역시 큰 산은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대표적인 등산로 이다.

3도 5군 16면 둘레가 500리,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반야봉은 수치상으로는 다섯번째 봉우리다. 천왕봉이 1915m, 중봉(1875), 제석봉(1805), 하봉(1781), 다음이 반야봉이다. 동서로 뻗은 지형상 상징적인 높이로 천왕봉에 버금가는 큰 봉우리요, 많이 알려진 봉이다. 지리산 종주 산행시 거의 생략하고 지나치는 봉우리이다.

반야봉은 수치상의 높이와 관계없이 지리산의 제2봉이며, 지리산을 대표하는 봉우리다. 저멀리 천왕봉에서도 만복대에서도 앞산인 웅석봉에서도 뒷산인 광양 백운산에서도 주능선 어디에서나 우뚝 솟은 여인의 엉덩이 모습에 매료된다.

반야봉에 얹힌 전설에 의하면 태산준령들 사이 사이에 걸쳐있는 지리산의 운해는 아마도 주봉인 천왕봉과 반야봉에 얹힌 마고할미와 반야의 애뜻한 마음을 그대로 전해 주려는 듯 심오함을 갖고 있다.

반야봉에는 지리산 산신 중 女神인 천왕봉의 마고할미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그 여신은 선도성모(仙桃聖母) 또는 마고(麻古)할미, 노고(老姑)라 불리는데 바로 천신(天神)의 딸이다. 그 천신의 딸인 마고할미는 지리산에서 불도를 닦고 있던 도사 반야(般若)를 만나 결혼해 천왕봉에서 살았다. 그들은 딸만 8명을 낳았다. 그러던 중 반야는 더 많은 깨우침을 얻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반야봉으로 떠났다. 그리고 마고할미가 백발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마고할미는 반야봉에서 깨우침을 얻기 위해 외로이 수도하는 남편 반야를 그리며 나무껍질을 벗겨 남편이 입을 옷을 만든다. 그리고 마고할미는 딸들을 한명씩 전국 팔도에 내려 보내고 홀로 남편을 기다린다.

기다림에 지친 마고할미는 끝내 남편 반야를 위해 만들었던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뒤 숨지고 만다. 갈기갈기 찢겨진 옷이 바람에 날리어 반야봉으로 날아가니 바로 반야봉의 풍란이 되었다고 전한다.

후세 사람들은 반야가 불도를 닦던 봉우리를 반야봉이라 불렀고, 그의 딸들은 8도 무당의 시조가 됐다는 이야



▲ 6월 17일 반야봉에 오른 65회 산우회원들. 작은 사진은 52회 김시우회장 및 김신웅, 신개식 회원.

기이다. 그래서인지 반야봉 주변에 안개와 구름이 자주 끼는데 하늘이 저승에서나마 반야와 마고할미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

답사시 65회 동문들과 함께 오르며 삼도봉에서 임익선 동문의 우렁찬 바리톤의열창 「그리운 금강산」, 「청산에 살리라」... 가곡은 8도에서 모인 객들 앞에 탄성과 환성을 자아낸 감동적인 장면, 두고두고 기억하리라. 계성을 빛낸 멋진 순간이었다. 7월 정기산행시에도 기대해도 좋을지. 임익선 동문 부탁드립니다.

울창한 숲길, 멀리 보이는 경관은 집착하리라. 지리산

의 웅장하고 무거운 산행 즐거기를 바랍니다. 비가오면 운치있고, 더 멋진 산행 약속합니다. 더불어 속옷 겹옷 한 벌씩 가져와 버스에 두고내려 하산 후 달궁계곡에서 깨끗이 씻고 갈아입으면 더욱 깔끔하고 즐거운 기분일 것입니다. 동문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산행 코스는 다음과 같다.

▷ 긴 코스 : 성삼재-노고단-임결령-노루목-반야봉-삼도봉-화개재-뱀사골계곡-반선주차장

▷ 짧은 코스 : 성삼재-노고단, 반선주차장-뱀사골계곡
글 · 류청웅(48회 · 등반대장)

<2007년분 기별 산우회비 납부안내>

산우회비는 각 기수별로 연간 10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산우회보 인쇄, 발송 및 산우회의 각종 행사시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아직 납부치 않았신 기수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계좌 : 대구은행 247-07-000915-8 (예금주 : 신대수)

<7월 정기산행 안내>

- ▶일 시 : 2007년 7월 1일(日) 07:00 (시간 지켜 주세요.)
- ▶장 소 : 모교 정문 앞
- ▶회 비 : 1만5천원(가족1만원)
- ▶준비물 : 도시락, 식수, 과일, 간식류, 여분의 옷가지 외
- ▶문 의 : 신대수(70회) H.P : 011-251-9613



HOTEL AIRPORT

호텔에어포트

http://www.htlair.com

- 넓은 주차장, 품격있는 결혼식, 돌잔치, 회갑연, 기타행사
- 웨딩, 연회 예약문의 : 053)260-0306~7

대표 서 은 수 (55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대구국제공항 내) / TEL : (053) 260-0001

안나푸르나 트레킹

히말라야에서 만난 자연과 사람들

-계성산우회보 41호 연속-

◆ 네팔관광

〈풀바리 호텔(Fulbari Resort & Spa)〉

풀바리는 네팔어로 「꽃정원」이라는 뜻이다. 포카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지은지 오래된 고급 리조트 호텔로 강이 흐르는 깊은 계곡 위 산기슭에 세워져 히말라야 산맥의 전망이 매우 좋았다. 꽤 넓은 부지에 갖가지 꽃과 조형물로 꾸며진 산책코스엔 물이 흐르고 큼직한 고기가 튀어 놀고, 수영장·온천·골프장·탁구장·테니스장 등의 레저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1시간 정도 산책을 즐겼다.

불편하다면 정전이 잦았고 불이 들어와도 전압이 불안정하여 전등이 켜지지 않았다.

〈포카라 시내〉

포카라는 네팔 제2의 도시로 최고의 휴양도시지만 인구는 고작 17만명이다.

어릴적 이발소 벽면에 걸린 눈 덮힌 높다란 산 기슭에 호수가 있고 그 사이에 양옥집이 평화롭게 자리잡은 사진책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데가 어딘가」 하고 동경한 적이 있었는데 「페와 호수」가 바로 그러한 사진의 배경이다.

날이 흐려서 히말라야의 빼어난 설산 모습이 호수에 비치는 장관은 볼 수 없었지만 1시간 가량 나무 보트를 타면서 나와 연배가 비슷한 4사람이 「희망의 나라로」 「내마음은 호수」 「가고파」 등등 아는 가곡은 모두 합창하면서 페와 호수의 푸른물에 한국인의 정서를 푹 담구었다. 재래시장, 데비폭포, 티벳 난민촌 등지도 둘러 보았다.

〈카트만두 시내〉

카트만두는 네팔의 수도로 해발 1,300m 분지에 약 100만명이 살고 있다.

처녀신인 쿠마리신의 화신으로 뽑힌 처녀가 살고 있는 쿠마리 사원에서 처녀신도 보고 세계최대의 불탑인 보우드넛 사원, 이미 5세기 경에 불교 주요 성지였다는 쉬엠티나트 사원도 보았다.

이들 모두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라는데 많은 관광객·순례객·수도승이 각각의 목적으로 이곳들을 찾아와 관광을 즐기고 있었다.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 역사와 유물을 꼼꼼히 보면서 깊이 사색하고 메모하

는 노르웨이에서 온 노부부, 팬발로 삼보일배를 하면서 멀리서 탑까지 오고 있는 나이가 지긋한 스님, 염원을 중얼거리면서 탑주위를 도는 사람들... 우리나라 문화재와 비교할 때 규모는 엄청나게 크고 석조물이라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빼고는 정교하지는 못해 예술적 가치는 떨어지고, 무엇보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현지인들이 문화재 마루바닥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쬔면서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파슈파티나트는 힌두교 최대의 성지로 사원과 화장터가 바로 연결해 있었다. 빈민층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화장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화장 후 재를 강에 뿌리는데 그 강이 성지라고 목욕을 하는 힌두교인, 하루종일 갈퀴로 강바닥을 긁으면서 시체를 대운 잣더미 속에서 금빛발이나 반지등을 찾아 먹고 사는 사람, 층층으로 시멘트 계단이 되어 있는 곳에 누워 있는 시체, 시체 옆에서 재를 지내는 유족, 매캐한 냄새를 맡으면서 관광하는 사람들... 생과 사의 갈림길이 여긴가 싶다.

〈여행후기〉

네팔은 지구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 산이 있고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이 있는 나라다.

한반도의 2/3크기(14만 7천 km²)에 2,700만명이 카트만두와 같은 분지에 도시를 이루거나, 온통 산으로 뒤덮힌 산기슭 곳곳 해발 3,000m까지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세계에 8,000m가 넘는 고봉 14봉 중 8좌가 있는 히말라야는 네팔 국토의 동서로 장장 800km에 걸쳐 펼쳐져 있어 여행객 대부분은 등산객이고 또 불교, 힌두교의 성지로서 종교적 목적의 관광객이다.

트레킹 코스만 수십여 코스가 있는데 내가 다녀온 코스가 가장 쉬우면서도 경관이 뛰어난 코스다. 5일간 산행에서 약 30시간, 가장 많이 걸은 날이 10시간을 걸었다.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내가 선두에서 걸은 시간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해발 4,130m)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5,500m)까지 트레킹을 하려면 적어도 2주일의 소요되는데, 나는 시간 관계로 9일간 푼힐 코스를 다녀왔다.

ABC 코스든 푼힐 코스든 전문 산악인만 가는 곳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주말에 우리나라 산을 5~6시간 탈수 있



▲ 사원 화장터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시체(왼쪽 가운데)와 재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가운데)



▲ 포카라 페와 호수에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는 체력만 있다면, 조금 고생할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다녀 올 수 있다.

네팔은 여행가라면 누구나 한번은 가 보기를 꿈꾸는 나라다. 갔다오면 마인드가 달라진다. 새파란 하늘, 은색으로 쏟아지는 별빛, 눈 덮힌 히말라야의 장엄함, 그 속에 살고 있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정보도 통신도 없는 산속에서 짧지만 5일을 보내니 마치 내가 도력이 깊은 어느 고승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하고 온 기분이다.

나는 이번 여행을 「해초 여행사」의 패키지 트레킹으로 다녀 왔는데, 같이 간 일행이 모두 초면이지만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었고, 음식도 우리나라 어떤 웰빙

식품보다 더 좋고 맛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었으므로 산행 후 몸무게가 2kg 늘었다.(다른 일행은 3kg 줄었다고 함)

네팔이 너무 좋아 카트만두에 살면서 한국 등산객을 안내하는 교민들이 여럿 있으니 개별적으로 여행하고 싶은 사람은 이들과 연결해서 가보는 방법도 있다.

두가지 방법이 그 방법대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있으니,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가는데 좋다.

여름에 히말라야를 찾는 등산객도 더러 있지만, 트레킹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3~4월과 10~11월 이라고 하니 계성 산우회원 여러분도 한번 다녀오기를 권한다. 결코 후회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할 것이고 마인드가 달라질 것이다. <끝>

글 · 황성길(51회 · 직전회장)

꽃집 자을병

경조화환 | 관엽 | 동서양란 | 꽃바구니

전 · 국 · 배 · 달

최 돈 문 (56회 · 동기회 총무)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196(동인꽃도매상가입구)

TEL : (053)424-0099 FAX : (053)424-4499

H.P : 010-8822-1400

E-mail : cdm1030@hanmail.net

산행기

산에서의 맥주 한 모금, 어떤 얼음물 보다 시원

마이산 산행에 참가 하기위해 서 모임장소인 모교에 모처럼 왔다 지난 4월 사랑도 산행 갈때는 시간이 빠듯하여 모교를 둘러볼 시간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모교 교정을 거닐어 보았다. 추억의 50계단도 걸어보고 학교재학시 절과는 다르지만 감회가 새로웠다.

모든 회원들이 탑승 하고 마이산으로 출발.

▷함양 휴게소 (08시00분)

아침으로 김밥과 라면을 먹었다 같은 음식인데 난 휴게소음식은 영 맛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지난주 천황산 갈때의 배고픔이 생각나 입맛은 없으나 요기는 하였다.

▷강정대(10시10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이다. 산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하나 종주산행시간 5시간30분 정도라 하니 천부터 무리하지 말고 주위 경치도 즐기면서 천천히 산행을 해야겠다.

산행 초입에 들어서니 시원한 산바람과 싱그런 풀내음이 코를 자극한다.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담소를 나누어 가며 한발 한발 나아간다.

▷광대봉(11시30분)

저 멀리 암마이봉과 비룡대가 한눈에 들어 온다. 여기서 암마이봉까지 굽이굽이 능선이 펼쳐져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대부분의 종주 산행이 그러하듯이 능선을 따라 산행한다. 정상 향해 오르막길만 오르는 산행보다는 한결 수월하지만 나무 없이 암봉만 있다면 땀방울이 더울지 모르지만 다행히 이산은 나무들이 많아 그늘도 많다.

여기저기서 기념 촬영이 한창이다. 나와 내아내도 같이 포즈를 취하고 한 컷... 모두들 산행의 참맛을 만끽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간간히 불어오는 산바람도 내 몸에서 뿜어내는 열기는 식히지 못한다. 얼음물을 연신 들이키지만 흘러내리는 땀방울은 그칠줄 모른다. 산이 아니면 어찌이런 시원한 땀방울을 흘리리요.

광대봉에서의 휴식중에 간식

으로 에너지충전하고 고금당으로 출발. 첫 발걸음이 절벽이다. 로프를 잡고 하산해야하는 것이다. 다들 여러번 해본 솜씨이다. 여기저기서 내려 가는 방법을 코치 하신다. 내려가는 방법에는 정답은 없다. 오로지 다치지 않고 내려가는 것이 정답이지.

다행히 우리 팀에는 단한명도 다치지 않고 다들 잘 내려 가신다. 벌써 점심 시간이다. 고금당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넓은 자리가 있는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였다. 힘들게 올라와 먹는 점심은 그 어느 진수성찬과 비교가 되겠는가?

71회 형님들과 둘러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와 함께 점심을 먹는다. 형들은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녀 교육이 화제이다. 아들이 반항을 한다나 어쩐다나. 아작은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화제에 지루하다. 그리고 끼어들 틈도 없다. 우리집 냉장고가 너무 성능이 좋아 얼려서온 맥주가 아직도 얼음이다. 시원한 맥주는 먹고 싶고 할 수 없이 버너에 녹여 먹었다.

산에서의 시원한 맥주 한모금은 그 어떤 얼음물 보다 더 시원하다.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짜릿함이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고금당(13시30분)

멀리서 바라보아도 한눈에 들어온다. 고금당 암자가 햇빛을 받아 금빛이 더욱 찬란하게 반짝인다. 고금당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 왜 금철을 해놓았는지도 인적은 없고 문은 잠겨있고 계단 한켠에 고금당에 대한 팻말에 자연암굴(나옹암)에 암자를 지었다는 것만 기억이 난다.

고금당에 도착 하면 물이 펄펄 나온다 하시길래 정말 믿었다. 머리로 한번 감고 세수도 좀 하고 수통에 물도 채우고... 그런데 막상 도착 하니... 너무나 허탈 해서 말이 안나온다.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 도대체 누가 물이 펄펄 나온다고 말을 한거?

▷비룡대(나옹암)(14시30)

100개의 철계단을 올라 비룡



▲ 저 멀리 암마이봉과 솟마이봉이 보인다. 필자부부.

대에 오르니 주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산봉우리에 있는 정자는 참본다. 주위에 거칠 것이 없으니 바람은 엄청 시원하게 분다.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언제 흘렀나 싶은 정도이다.

비룡대에서 바라보니 암마이봉과 남부 주차장 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남부 주차장으로 바로 하산 하고 싶었으나 언제 내가 여기를 다시 올지몰라 왔는 길에 암마이봉과 더불어 탐사 까지 가기로 하였다.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비룡대까지는 회원들 대부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는 보이지를 안는다. 아내와 둘이서 쉬엄 쉬엄 가기로 하였다.

▷암마이봉(15시10분)

암마이봉 앞에 도착 하니 봉우리의 웅장함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산행하기를 잘 하였다는 생각이든다.

설악산의 깎아지른 절벽은 아니지만 두루뭉실한 바위가 제법 웅장함을 뽐 낸다. 마이봉 봉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다. 낮은 포복으

로 엎드려서야 겨우 카메라에 암마이봉이 들어온다.

▷탐사(15시40분)

암마이봉을 돌아 탐사에 도착 하니 오늘의 산행도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암봉과 암봉 사이에 자리잡은 탐사가 보인다.

탐사 마당에서 바라보는 암·수 마이봉을 바라보는 느낌이 산정에서 바라볼때의 느낌과는 사뭇 달랐다. 절벽에 매달려 있는 능소화 뿌리는 하나인데 그 크기는 우리나라 제일의 능소화라 할 수있을 만큼 컸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키웠다 하여도 저 정도로 자라지 못하지 않겠나 싶다.

80여개의 탐들 이갑룡 처사가 병서의 팔진도 법으로 축척 했다는 이 자연석 석탑군은 접착제를 쓴 것도 아니고, 시멘트로 이어 굳힌 것도 아니며, 더더구나 흙을 파서 서로 끼워 맞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1백여년의 풍상 속에 태풍과 회오리 바람에도 끄덕없이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다. 천지탐을 상단에 두고 오방탐이 호위하듯 서 있고 그 아래

산신각과 대웅전이 바위 위에 자리하고 중앙탐, 일광탐, 용궁탐, 신장탐 등 대탐 사이로 크고 작은 외줄탐 등 80여개의 석탑군이 웅기종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용궁탐 아래에는 섬진강의 발원지라고 적혀있는 샘(용궁)이 있다. 이로써 마이산 종주 산행은 끝나고 산 아래 첫집 초가 정답이라는 곳에서 하산주를 한잔 하였다. 조금데기술과 돼지바베큐의 여러 음식들과 산행의 피로를 풀고 산행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 산행을 기약 하면서 그렇게 이번 산행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었다.

대구에 도착 하니 시간은 22시가 넘어가고 있고 술취한 내머리는 어지럽기만 하다.

제일 막내 기수라고 이빠해주시고 챙겨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총동창 산우회로 저를 이끌어 주신 노규영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들과 잘 어울려준 내 아내 우선주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글 · 장보일(76회)

SHINHOO
주식회사신후

조경공사업 | 조경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엔지니어링(조경설계)

대표이사

박 종 후 (67회)

구미사무실: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814-1 상가내

대구사무실:대구 달서구 본동 1135-3(현대B/D 505)

TEL : (054)458-6106 | (053)526-9092

FAX : (054)458-6105 | (053)527-9092

Mobile : 011-539-0131 E-mail : shinhoo7@chol.com

6월 정기산행 전북 진안군 마이산에서 열려

6월 3일, 제89차 정기산행은 전북 진안에 위치한 명산 마이산에서 실시하였다.

아침부터 부쩍 높아진 기온 탓에 오늘 산행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는 듯 하다.

총 2대의 버스는 모교를 출발한지 약 3시간 좀 지나 목적지인 마이산 도립공원 함미산성 초입에 도착하였는데, 협소한 공간과 따가운 햇볕 탓에 스트레칭과 고가제창은 일단 생략하고 바로 산행을 시작하였다. 오늘 산행은 함미산성 입구에서 시작하여 암마이봉 탐사와 금당사를 거쳐 남부주차장까지의 총 거리 12km, 예상 소요시간 약 5시간30분의 종주 코스다.

일반인들의 인식속에 마이산은 그저 관광이나 가는 그런 산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런 종주 코스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초입은 조금의 경사길이지만 출발한지 얼마되지 않아 시원한 숲길을 마주하고 저 멀리 말(馬)의 귀처럼 생긴 암마이봉과 솟마이봉을 조망하며 오르락 내리락 한다.

출발한지 1~2시간 정도 지나 마주하게 된 높은 봉우리는 “광대봉”인데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봉우리를 내려서는 길은 아찔한 절벽이다. 약 50여 미터를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내려가는데 누구하나 우회길로 가지 않고 밧줄을 타고 내려간다. 특히 여성분들은 어려워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잘 내려간다. 아무 사고 없이 전원 안전하게 암벽등반(?)을 완료한다.

이곳 마이산 종주 산행은 지리산 종주의 축소판인양 지루하게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는데 오늘의 종점인 암마이봉 바로 직전에 팔각정을 만나 양 사방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양껏 흘린 땀이 금방

식어 버린다.

암마이봉을 지나면 바로 남부주차장으로의 하산인데, 오늘 총 산행시간 예정과 마찬가지로 총 5시간30분 만에 최종 목적지(?)인 식당에 도착하여 기수별로 조깅데기 술과 돼지목살로 오늘의 피로를 푼다. 여기저기 하산주가 벌어지는 가운데 오후 5시30분에 1호차가 먼저 대구를 향해 떠나고 아직 하산주에 목이 마른 기수는 다른 식당으로 재차 자리를 옮겨 2차를 시작하는데 동동주와 함께 젓가락 장단에 트로트 합창을 마지막으로 2호차는 오후 7시경에 대구를 향해 출발!

오늘도 무사고 산행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참석하여주신 동문 회원 여러분 이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39회 : 서정원 부부 ▷42회 : 남장호 ▷48회 : 변학준 부부, 조진수 부부, 손성구, 류정웅 ▷49회 : 강일영 부부 ▷50회 : 김덕수 ▷51회 : 박동고 부부, 권영호 부인, 백학조, 장무웅, 김병주, 허종철, 김명숙 ▷52회 : 김시우, 김신웅, 박영기, 정하룡 ▷54회 : 최광영, 우진권 ▷55회 : 정인재 ▷56회 : 변한석, 안영환 ▷60회 : 윤재호 부부, 정익표 부부, 박영태 부부, 김인중 부부, 주이광 ▷61회 : 김성수 부부, 이승엽 부부, 유진, 남인길, 신문탁, 김영식, 성연복, 최철암 ▷62회 : 권호춘, 김홍대, 이종석, 김진원 부인, 방인철 ▷65회 : 곽석현 부부, 김영문, 오상달 ▷68회 : 송준석 ▷69회 : 김도균 ▷70회 : 이현석, 장대욱, 서태호, 신대수 ▷71회 : 노규영, 박범준, 석준수, 장동현, 차봉준, 주창엽 부자 ▷76회 : 장보일 부부 (총 72명)

글 · 신대수(70회 · 총무)

산우회 탐방

계성 62회 산우회



▲ 5월 13일 등반대회시 팔공산 파계재에서.

62회 산우회 모태는 2001년 당시 동기회장인 송근배 회장과 김철봉 총무가 주축이 되어 총동창회 산우회에 참가하면서 시작되었고, 두사람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동기들의 호응 아래 2002년 2월에 정식 62회 산우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초대회장에는 김홍대, 총무는 황규하 동기가 맡았고, 산우회원들의 뜨거운 성원 아래 2002년 등반대회 1등을 차지하면서 2003년, 2004년 연속 등반대회 1등이라는 3연패의 쾌거를 이룩하였다. 2003년도 김홍대 회장, 오창길 총무, 2004년에는 권호춘 회장, 이종석(A) 총무, 2005년~2006년은 임정래 회장, 이종석(B) 총무가 맡아 수고 하였고, 금년들면서 이종석(A) 회장, 권호춘 총무가 맡아오고 있다.

등반대회 1등 3연패 후 근래 다소 부진함을 보이고 있으나, 심기일전하

여 금년에 백두대간 릴레이 종주(단장 : 권영보, 총무 : 장욱)라는 다년간 장기 Project를 동기회내에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시 62회 산우회 본연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계성총동창회 산우회의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계속해서 선·후배 여러분들의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글 · 권호춘(62회 산우회 총무)



산우회 회장
이 종 석



산우회 총무
권 호 춘

집행부 소식

- ❖ 산우회 편집위원은 편집회의(6월 7일) 및 교정(6월 20일)을 실시하였다.
- ❖ 5월 17일 52회 합동등반시 정인재(55회) 편집국장이 취재차 동행을 하였다.
- ❖ 6월 17일 7월 총동창산우회 차기산행지 답사코스가 65회 산우회 6월 등반코스와 같이 김시우 회장과 류정웅 등반대장, 52회에서 서정환, 신개식, 김신웅 회원이 65회 동문들과 함께 산행을 하였다.

기별 동정

◆ 제51회

6월 24일 청송 주왕산으로 산행예정이다.

◆ 제52회

5월 27일 예천 학가산에서 52회 재경동기회와 합동등반으로 90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준비해온 푸짐한 음식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예천 부군수로 재직중인 구본학(55회) 동문이 참석하여 하루를 같이 보냈으며 극진한 대접을 받은 52회 선배들이 한결같이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6월 24일 치산 팔공폭포로 산행 예정이다.

◆ 제63회

6월 24일 가창 대립생수 건너편 상원산으로 산행예정이다.

◆ 제65회

6월 17일 26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지리산 성삼재에서 뱀사골로 약 7시간의 산행을 하였다.

◆ 제67회

6월 10일 21명(부부동반)의 회원이 문경 조령산으로 산행을 하였다.

◆ 제70회

매월 2, 4째 금요일 대구 근교 야간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등산장비 전문점-

노스페이스 중앙점

대표 조 홍 채 (64회)

H.P. 017-504-2277

- 중 앙 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150-16 (대백⇄중앙파출소) / Tel. (053)255-5511
- 동성로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36번지 (한일극장 건너편) / Tel. (053)421-4433 Fax. 424-7361
- 구 미 점 : 구미시 원평2동 1008-33 (구미 국민은행 건너편) / Tel. (054)456-6900~1

계성산우회원 특별대우!!

